

# 순천시 조곡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사 주민 만족도 높아

### 주민들 소통과 생활·복지 중심으로 자리잡아

순천시 조곡동행정복지센터가 지난 5월말 현 위치(자경1길 13)로 신청사를 이전한 후 편리한 대중교통과 인근 문화생활체육공원(구 철도운동장) 등 편의 시설이 용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조곡동행정복지센터 순환기 동장에 따르면 신청사는 기차모형을 형상화한 3층 건물로 1층에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실과 주민대화방, 2층은 소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작은도서관, 3층은 대회의실, 주민자치위원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1층에 위치한 주민대화방에는 인근 어르신무료급식소와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 '실버카페'를 개점 준비 중이다.

'실버카페'에서는 60세 이상 바리스타자격증을 소지한 마을 어르신 10명이 드립커피와 수제차등을 판매하고,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에서 만든 제품을 전시 판매할 예정으로 노년층 소득증대와 지역 화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라선과 경전선이 '열십자

(+)'로 교차되는 순천역을 끼고 있는 조곡동은 순천철도관사마을이라는 전국 유일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순천철도마을축제(7월6일), 철도어린이동예제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마을 축제는 마을주민들(조곡동 행사추진위원회)이 직접 개최하고 있어 마을자원 활용과 주민참여도가 높아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철도마을' 조곡동 브랜드 안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조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큰동네, 조곡(稠谷)이야기' 마을신문이 상·하반기로 2회 나눠 발행된다. 동네의 소소한 이야기를 주민자가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쓴다. 편집도 주민들이 모여 기사를 신별하고 있어 마을이야기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가 넓어지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늘어났다. 올해 하반기에 운영될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기존 3과목(노래교실, 요가, 풍물)에서 주민

들이 하고 싶어 했던 라인댄스와 원어민 영어 과목을 추가 개설해 워라밸 문화 확산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전한 복지센터 인근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체육공원이 있어 관내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과 행복을 나누는 한끼, 함께 하는 조곡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월 3번씩 마중물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드리고 안부를 살피고 있다.

또한, 관내 순천생협양방원과 의협약을 통해 매월 3회 한의사 의료진들이 건강상담과 간단한 치료, 감염예방 교육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동네주치의' 역할을 북돋고 하고 있다.

순천시조곡동 순환기 동장은 "원주민 비율이 높은 조곡동은 인구 6600여명의 작은 공동체이지만, 소속감과 참여의식이 높아 행정복지 서비스가 잘 갖춰지고 있다"면서 "특히, 철도관사마을을 비롯해 철도를 빼놓을 수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도와 관련된 문화행사와 인프라를 꾸준히 갖춰 순천에서 가장 살기좋은 마을로 탈바꿈 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곡성군, 청사 신축 타당성 착수보고회 개최

곡성군이 지난 29일 곡성군청 소통마루에서 '곡성군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유근기 군수와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추진 방향,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1977년에 준공된 곡성군 청사는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공간 협소 등에 따른 수많은 불편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 균형을 찾는 군민들의 불편

등 여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기본적인 신축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군은 9월부터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1월 신축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단계를 거쳐 신축 공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김영희 기자

## '보성차(茶)' 中서 최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 중국(일조) 국제 차 박람회 홍보관 운영



보성군은 지난 27일부터 4일간 제1회 중국(일조) 국제 차 박람회에 일조시의 초청을 받아 보성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조시가 3대 해안 녹차도시인 보성군과 일본 시즈오카, 중국 일조시를 초청해 개최되었으며, 해안 녹차 도시 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보성군은 박람회에서 보성 홍보관을 운영하며 박람회에 참석한 중국인들은 물론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보성 차의 우수성과 녹차수도 보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국민대 유양석 교수는 해안녹차 포럼에서 보성녹차 브랜드 발전과 해안 녹차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했으며 일조시와 보성군, 일본 시즈오카 차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협력과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보성 차 브랜드 전략, 보성관광 등에 관한 열경을 펼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박람회에서 중국 차(茶)가격을 조사해본 결과 중·상품의 경우보성차가 중국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 프리미엄라인으로 접근하면 중국차에도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보성군은 오는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7회 보성 세계차 박람회에 중국 일조시를 초청해 양 도시의 녹차 및 관광 등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녹차수도 보성군은 2008년부터 '군수품질인증제'를 도입해 명품 녹차 양산 및 차관련 상품의 대외적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보성 계단식 전통차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등재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주지역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보성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 광양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 선정

### 기관표창·인센티브 확보

광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6천 1백만 원을 확보했다.

상반기 최종 집행 실적은 목표액 3,769억 원 대비 241억 원을 초과한 4,010억 원으로 106.4%를 달성했다. 신속집행 평가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 동종별 14개 그룹

으로 분류해 평가했다.

이 중전국 75개 시에서 총 8개 시만이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전라남·북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광양시가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이번 평가는 지난 6월 30일 지방재정분석시스템 실적에 기준으로 △신속집행 실적 △일자리 예산 집행 실적 △국고보조 사업(SOC) 집행 실적 등을 심사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상반기에 지방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하여 지역실물경제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방기태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연초부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직원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실태조사

여수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1000㎡이상 시설물에 부과한다. 올해 대상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의 시설물 소유주다.

시는 조사만을 꾸러 시설물의 사용용도와 소유자 변동 등을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10월 초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시설물 784개소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9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고흥군, 글로벌 인재 육성 위한 해외문화 체험 실시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송귀근)는 지역 우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과 우리 역사 문화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해외문화체험은 고흥군 학생 영어·한국사 경시대회 입상자 28명(영어 16, 한국사 12)과 관내 우수 중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유럽(스페인, 포르투갈), 중국·러시아, 백두산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영어경시대회 입상자(16명)는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 마드리드 왕궁, 프라도 미술관과 포르투갈과

티마 대성당, 리스본 벨렘탑, 에두아르 7세 공원 등 유럽의 교육, 역사, 문화, 예술 등을 체험 실시 중에 있다.

또한, 한국사 경시대회 입상자(12명)는 8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혁명광장, 고려인 문화센터 역사박물관을 탐방하게 되며, 특히,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재경고흥군향우회와 고흥군에서 함께 추진하는 고흥미래인재 역사 문화 탐방은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비롯 광개토태왕비, 장수



왕릉 등 찬란했던 고구려의 역사 문화를 탐방하게 된다.

고흥=한윤섭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